

컴퓨터 활용 재능 나눔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들

제17회 | 교육부장관상 | 정남진산업고등학교 김은재

정남진산업고등학교는 전남 장흥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로,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. 그러다보니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. 그러나 재능나눔동아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다.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여러 기관의 공모에 참여하여 후원을 받아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경제적 부담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. 실기접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방과 후 컴퓨터 연습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.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힌 동아리 회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.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지만 여건상 컴퓨터를 자주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고루 나눠주자는 취지였다. 매주 1회 방과 후 2시간씩 정남진산업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 : 1 교육을 실시했다. 그 결과 2014년에는 20명, 2015년에는 10명의 수혜 학생이 디지털활용능력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. 그 과정에서 봉사에 참여한 동아리 회원들 역시 미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, 다수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. 동아리 회원들은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직접 방문하여 실내외 청소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와 놀이, 외부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약 108명의 수혜자들과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맺고 있다. 특히 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한 시골 지역 그룹홈의 아이들에게는 동아리 회원들의 보살핌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.